

광주시교육청 청렴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

임재훈 “각종 비리·성범죄에 솜방망이 처벌”
“근절 위해 처벌·내부통제 등 더욱 강화해야”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가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처벌과 내부통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앞서 낸 보도 자료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가 꼴찌”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6년 16위, 2017년 17위, 2018년 17위로 2년 연속 꼴찌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청렴도 측정 분야 배점 비중이 높은 외부청렴도 분야에서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직·간접 경험이 존재했고, 타 기관에 비해 금품·향응제공 경험 금액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범죄로 경찰수사를 받은 교사와 지방공무원 중 검찰에 송치된 인원 비율을 보면 87.7%로 매우 높은 점도 이유로 꼽았다. 임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각종 비리와 성범죄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척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윈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현황 역시 장계의 결 요구에 비해 실제 처벌(양징)이 대폭 경감돼 실효성이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품수수로 교원에게 해임 징계를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정직 1개월로 경감됐고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징계를 요구했는데 실제로는 정직 1개월, 견책 등으로 대폭 경감됐다”며 “교원



과 지방공무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처벌과 내부통제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인호 기자**



태풍 피해 농민들의 투쟁 15일 오전 나주 공산면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정부에 태풍 피해 배 가격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꿈을 현실로”...보성군 22일 청소년 진로박람회

보성군청소년수련원(원장 박형호)은 22일 한국차박물관 야외무대에서 지역 청소년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개최한다. 청소년들은 이번 박람회에서 다양한 직업분야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고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진로박람회에서는 미래의 유망 직업군인 가상현실전문가, 신재생 에너지연구원, 사물인터넷(IOT) 전문가,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가 등이 직업 상담을 진행한다. 또 구체적인 미래 설계와 직업적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진로 상담관 △고입정보관 △학과탐

색관 △직업체험관 △미래직업체험관 △기관홍보관 등 총6개 테마 35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보성군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로 박람회를 확대운영하고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인구원 기자**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주민 에너지복지정책으로”

주민들 “저수지는 주민들 향토자산” 목소리



충북 청풍호 수상 태양광발전소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중단. 보류한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민들의 에너지복지정책으로 전환해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나주시 다도면 지역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나주호를 포함해 장성호, 해남방조제 등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제안공모사업을 예정하거나 검토했다. 나주호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최규성 전 사장 재임시절인 지난해 12월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로 추

진하려 했지만 공사의 태양광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잠정 중단·보류됐다. 농어촌공사는 나주호에 1800억 원을 들여 설비용량 100MW급 수상태양광발전설비를 120만100㎡ 규모로 추진했었다. 이는 만수면적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사업이 잠정 중단·보류되고 농어촌공사가 재추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저수지는 주민들의 향토 자산”이라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정책을 전면 전환해 재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답수호 주변 지역민들의 수상태양광 발전수익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가 강제수몰된 저수지 주변 주민들의 역사적 정서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반박했다. 나주호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찬성률이 90%에 달해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재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다도면 지역발전위원회 정모씨는 “많은 주민들이 발전수익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민 에너지복지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재 나주호 태양광 발전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며 “주민 동의와 함께 경관이나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전체 투자액의 5% 수준에서 마을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9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

2019. 10. 25(금) - 27(일) 3일간

완도해변공원 / 완도타워 / 완도수목원 / 청산도 일원

주최·주관 청정완도가을빛여행추진위원회